

유무기의 목장

구치노에라부지마 섬 동부의 유무기에 있는 조영(町營) 송아지 목장은 1883 년부터 1889 년에 걸쳐 처음에는 양 방목지로서 이용되었습니다. 당시 일본에서는 드물었던 양 방목이 이웃 섬인 마게시마 섬에서 성공한 데 자극을 받아 섬 주민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 목장을 설립했습니다.

구치노에라부지마 섬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마즈 마타시치(1827~1911)는 유무기의 미개간지가 양 방목지로 최적의 지형이라고 믿고 이를 제공했으며, 또 군에서 양모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주인 가네모리가 이끄는 집단이 1883 년에 구치노에라부 목양사를 설립하여 그해 6 월에 메이지 정부로부터 8,000 엔의 융자금과 175마리의 양을 받았습니다. 양의 숫자는 1885년까지 570마리로 늘어났고, 1886 년에는 750 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. 그러나 사료값과 운송비 등이 너무 올라 이 회사는 금방 문을 닫았습니다. 그들은 또한 태풍의 영향과 외진 곳에 떨어진 구치노에라부지마 섬의 위치라는 과제에도 직면했습니다. 1889 년에 이 목장은 문을 닫았고 공매에 부쳐졌습니다. 그 후 중앙 정부가 토지를 개척하기 위해 농업식민지를 만들어 사람들이 남쪽의 아마미오시마 섬과 기카이지마 섬에서 유무기로 이주했습니다.

그 뒤 곧 이 땅은 송아지 목장으로 변경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창했습니다. 그러나 2015 년의 분화로 송아지와 다른 가축이 어쩔 수 없이 피난해야 했기 때문에 이 목장의 활동은 쇠퇴했습니다.